

# 스크린 쿼터 축소의 영향분석

## Impact of Cutback of Screen Quota in Korean Movie Market: Three Years Before and After the Screen Quota Reduction in 2006

김정호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Jung-Ho Kim(kafa1006@khu.ac.kr)

### 요약

한국영화의 전국 관객 수는 2006년 9,791만 명에서 2009년 7,647만 명으로 감소추세이며 점유율 또한 2006년 63.8%에서 2009년 48.8%로 낮아졌다. 이 글은 스크린 쿼터가 축소된 이후 3년과 이전의 3년간의 한국영화 관객 수를 비교하여 스크린 쿼터가 축소된 이후에 발생한 한국영화 관객 감소가 스크린쿼터의 축소에 의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한국영화 평균 관객 수가 2003부터 2005년 사이의 1,107,217.82명에서 스크린 쿼터가 축소된 이후인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의 640,109.9123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는 스크린 쿼터의 영향임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서 한국영화 흥행성과의 불평등도도 지니계수로 살펴본 결과 0.84로서 상당히 심화되었음이 드러났다. 반면에 미국영화의 평균 관객 수는 축소이전 3년간의 432,204.6322명에서 축소이후 559,907.287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차이가 스크린 쿼터의 축소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 미국과 한국영화 이외의 국가의 영화들의 한국영화시장에서의 흥행성과에는 스크린 쿼터 축소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중심어 : | 스크린 쿼터 | 한국영화산업 | 지니 계수 | 박스 오피스 | 불평등 | 미국영화 |

### Abstract

In 2006, the number of days of the screen quota (theatrical movie screening days of Korean produced films in a year required by the law) was reduced to 73 days from 146 days per year.

Three years after the reduction of screen quota, this paper studies the impact of reduction of screen quota system on Korean produced films.

Using Non-parametric statistics, Gini Index and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shows that the average number of Korean moviegoer of Korean films which was released last three years(2007-2009) after the cutback of screen quota in 2006 is reduced to 640,109.9123 from 1,107,217.82 for three years(2003-2005) before the cutback. And this is significant in statistics. while Hollywood film gets 76,168,518 more audiences than the total number of audience for 2003-2005, the total numbers of Korean films is cut to 218,917,590 (2007-2009) from 245,802,356 (2003-2005).

Gini Index of 2009(0.84) indicates that the inequality of a distribution of box office performance of Korean films is getting worse after the cutback.

For now, the reduction of screen quota has negative effects for Korean films.

Only the technological advance, education of relates personnel, redesigning of the related infrastructure, market-driven movies, creative production, and the promotion of the independent films can reduced the negative effects.

■ keyword : | Screen Quota | Korean Movie Industry | Gini Index | Box Office | Inequality |

## I. 들어가는 말

스크린 쿼터가 2006년 7월1일을 시작으로 종전 146일(연간 상영일수의 40%,1996년 영화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최대 40일을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스크린 쿼터 일수는 106일이라고 볼 수 있다)에서 73일(연간 상영일수의 20%)로 줄어든 지 4년여가 지났다. 1996년 영화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최대 40일을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스크린 쿼터 일수는 106일이라고 볼 수 있다. 스크린 쿼터의 축소 움직임을 보이던 2006년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 표면적으로는 한국영화의 선전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위기와 맞물려 이뤄진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한 한국영화제작 종사자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이러한 체감경기는 대학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한국영화제작이 활발하던 시기에는 휴학을 하고 영화제작 현장에 단기로 일을 하던 학생들이 많았으나, 최근은 그러한 사유로 인한 휴학이 빈번하지 않다.

한국 극장의 영화관객수는 2002년 1억513만 명을 기록한 이래, 2009년 1억5490만 명을 동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1억 관객을 넘어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 이러한 기록들은 한국영화산업이 잘되고 있다는 착시현상을 일반인들에게 심어주기도 한다. 외국영화의 동원 관객 수를 포함한 관객 수 통계는 극장업계의 경제적 상황을 대변하고는 있으나, 한국영화제작업 종사자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글에서는 스크린 쿼터 축소이후의 3년간의 한국영화제작업계의 상황을 축소이전 3년간의 그것과 비교분석하여, 현 단계에서 스크린 쿼터축소의 영향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고자 한다.

아울러서, 스크린 쿼터 축소론자들이 정량적 도구를 바탕으로 스크린 쿼터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논리들을 돌아보며 한계를 살펴보고자한다.

요약하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 1) 스크린 쿼터 축소 전후 3년간의 한국영화시장 성과 간에 차이가 있는가?

스크린 쿼터 축소가 전체 한국의 영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관객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살펴본

다. 축소 전후 3년간의 한국에 개봉된 영화전체, 미국영화, 한국영화로 집단을 나눠서 평균관객수를 비교해 보고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극장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효과와 영화 프린트 복제, 광고 홍보에서의 고용효과가 있는 미국영화와 영화제작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을 수반하는 한국영화의 성과 간에는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스크린 쿼터 축소 전후 3년간 한국영화시장에서 흥행 성적에 대한 지니계수 분석을 통해서 흥행의 양극화현상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스크린쿼터의 효용성에 대한 기존 연구의 흐름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제도에 대한 연구는 크게 이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진행되어 왔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영화분야 연구자들이 문헌연구 등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론을 동원하여 스크린 쿼터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해왔고, 후자의 경우는 경제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통계적 도구를 활용한 양적인 연구 방법을 취해왔다. 전자의 한계는 문제는 감정적 문화적 당위성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던 측면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스크린 쿼터제도 이외에 다양하게 존재해왔던 제도적 제약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거나, 90년대 이전 한국영화의 정부 통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결여한 상태에서 단일한 변수로서 스크린 쿼터만을 가지고 스크린 쿼터와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연관시키려는 한계를 지닌다.

2차 대전 후 영국과 프랑스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의 스크린 쿼터 제도도 그 제도의 원래의 취지는 미국영화에 대항하여 자국의 영화를 일정정도 지켜내는 것이다. 자국의 영화를 지켜낸다는 것은 미국영화 일변도의 상황에서 자국영화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문화적 다양성의 방법인 동시에, 자국 영화산업을 육성

하기 위한 제도이다. 애초의 스크린 쿼터의 입법 취지는 미국영화에 대한 자국영화의 문화적 다양성 확보이다. 최근의 논의에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희석시키는 논의가 전개된다. 미국 이외의 전 세계 영화가 얼마나 한국에서 상영되는지, 한국 내 Off-충무로 영화 즉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라는 장르의 영화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상영되는 가에 까지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광의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2차 대전 후 여러 나라에서 도입한 애초의 스크린 쿼터의 취지와는 일치하지 않으며, 스크린쿼터 무용론자들이 한국영화내의 다양성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스크린 쿼터의 효용성이 낮다고 주장하여 스크린 쿼터유지라는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어떠한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존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그 제도가 애초에 의도한 대상에 얼마만큼 제공을 하며, 또한 제도의 존치를 통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실익보다 작아야 한다.

박민수와 오정일[2]은 1993년에서 2004년까지의 개별극장의 영화 상영 패턴 분석을 통하여 스크린 쿼터가 질적 양적으로 극장주의 상영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허핀달-허쉬만 지수분석<sup>1</sup>을 통해서 1998년 이후 한국영화의 다양성이 확대되었음을 보였다. 한국영화의 호황기에는 스크린 쿼터제가 극장의 외국영화상영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불황기였던 1993년부터 1998년 사이에는 극장의 외국영화상영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스크린 쿼터를 충족시킨 극장에 비해 스크린 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에서 외국영화의 상영이 줄어들음을 관찰하였다. 또한 한국영화의 침체기에는 극장주들은 소수의 흥행성 있는 한국영화를 집중적으로 상영함으로써 스크린 쿼터를 채우는 행태를 보임을 보고 한국영화 침체에 스크린 쿼터는 영화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가정한 다양한 한국

영화의 상영이 스크린 쿼터의 주목적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며, 배급사와 극장이 수직적으로 결합한 경우와 멀티플렉스의 상영행태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는 한계를 지닌다.

오정일과 조현승[3]은 스크린 쿼터의 정책적 목표를 다양한 한국영화의 상영을 전제로 하고 스크린 쿼터가 한국영화의 다양성에 기여하였는지를 지니 계수로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기본 가정을 다양한 한국영화의 상영이 스크린 쿼터의 정책목표라고 보았는데, 이는 스크린 쿼터제도가 나오게 된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는 근본 문제를 가진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실시한 스크린 쿼터는 자국영화의 상영비율을 일정정도로 할당하는 것이며, 외국영화의 상영비율에 제한을 두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외국영화는 미국영화임은 스크린 쿼터라는 제도가 나올 당시의 영국과 프랑스 영화계를 보면 자명한 사실이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를 도입한 이유와도 일치한다. 한국영화의 다양성은 스크린쿼터의 기본 목표가 아니다. 즉 이들 연구의 기본가정이 잘못되었다. 이는 미국영화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영화홍행은 소수의 몇몇 작품이 흥행을 독점하는 파레토 분포(Pareto Distribution)<sup>2</sup>를 보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화산업은 지니 계수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크고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작다고 분석한다. 이들은 지니계수를 개별 한국영화의 상영일수, 그리고 관객수를 기준으로 두 종류의 지니계수를 계산해 냈다. 이들은 분석에서 연도별 지니계수를 구하지 않고 몇 년간의 영화들에 대해서 집단을 나눠서 분석하였다. 198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스크

1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는 기업수와 기업규모에 따라서 시장이 특정기업에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 가를 보는 척도로서 매출액이 가장 큰 기업부터 작은 기업 순으로 배열한 뒤 상위 50개 기업에 대한 각각의 시장점유율을 각각의 %로 구하고 이들 점유율의 제곱을 모두 합산하여 구한다. 0에 가까울수록 산업이 균등하게 분포된 경우이며 2에 가까울수록 특정지역, 시기,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2 Pareto Principle은 80 대 20 법칙으로도 알려졌는데,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가 1906년 이탈리아의 토지의 80%를 인구의 20%가 소유하고 있음을 관찰한 연구결과에서 비롯되어, 상위 20%가 소득의 80%를 가지게 된다는 법칙이다. 영화홍행의 경우도 20%의 영화가 전체 영화시장에서의 수입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다양한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난다. 그래서 영화홍행분포의 모집단이 가운데 부분이 불룩한 정상분포를 가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모집단의 정상분포를 가정하는 모수 통계학보다는 비모수 통계학 방법을 적용하던지, 아니며, 모집단의 분포가 정상분포가 아니라 파레토 분포 Pareto distribution 등을 따른다는 전제하에서 연구를 진행하거나 log값을 취한다.

린 쿼터가 유효하게 작용되었다고 보는 시기인 1993년부터 1998년에 한국영화의 상영일수에 대한 지니계수는 0.577, 관객 수에 대해서는 0.767로서 국산영화의 불평등도가 가장 높게 났다고 보았고, 상영일수 측면에서 불평등도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가 0.7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았다. 분석에서 한국영화의 상영일수에 대한 지니계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 그 시기의 한국영화 시장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된다고 보았는데 1985년부터 1992년까지의 상영된 영화집단의 상영일수에 대한 지니계수가 0.386에서 1993년부터 1998년까지의 상영 영화집단에서는 0.577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스크린 쿼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던 시기에도 스크린 쿼터가 국산영화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보며 스크린 쿼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의 일련의 연구가 갖는 한계는 우선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존재하였는데, 오직 스크린 쿼터 만을 독립변수로 놓고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모든 정책적 결과를 스크린 쿼터라는 단일 변수에 귀인 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또한 1985년까지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국내 20개 영화사만이 매년 정부에서 할당된 영화사 당 4-5편의 한국영화 의무제작편수와 이에 따른 외화수입 쿼터제로서 20개 영화사에 각각 2편의 수입 할당량이 주어진 공급통제가 이뤄졌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내 영화사는 한국영화 2편당 한편의 외국영화를 수입할 수 있었고, 대중상 등을 수상하면 2편의 외화를 추가로 수입할 수 있었다. 외화 프린트 벌수를 제한한 제도가 1980년에 6편에서 1994년에 12편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폐지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

양경미[4]는 국내 영화산업 보호 정책들이 수입규제, 배급규제, 상영규제, 국산영화진흥책 등으로 펼쳐져왔다고 보았다. 국가에 반하는 내용이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에 반하는 영화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1962년에 만들어진 외화수입추천제도는 등급분류와 중복된다는 비판을 받다가 2005년 현재의 위헌판결 후, 2006년에 폐지되었다. 수입 단계의 또 다른 규제책인 수입영화 프린트 벌 수 제한제도는 1966년부터 시행된 조치로, 국내에 수입된 외국영화가 한 번에 복제할 수

있는 프린트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한 영화가 극장에 동시에 상영되는 숫자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관객의 영화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왔다. 프린트 벌수 제한제도는 미국의 계속적인 압력으로 4-5편의 프린트 허용편수에서 1989년 12편을 기준으로 매년 한편씩 늘리다가 1993년 16편을 마지막으로 1994년 폐지되었다. 즉 1994년부터는 한 영화에서 만들 수 있는 프린트의 수에 제한이 없어져 한편의 영화를 수백 개의 극장에 동시에 걸 수 있는 와이드 릴리스가 가능해지고, 관객의 영화 개봉 초기에 영화를 접할 수 있는 접근 용이성을 높였다. 즉 1994년을 시작으로 스크린 쿼터를 제외한 다른 여타의 국내 영화산업의 보호를 위한 규제책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므로 오정일 등의 연구에서 스크린 쿼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는 시기인 1993년 이전에는 스크린 쿼터 외에 프린트 벌 수 제한 등의 다른 장치로도 규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 시기의 지니계수가 낮다는 것이 스크린 쿼터가 필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결론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리고 스크린 쿼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시기를 1993년으로 보는데, 이 시기에 영화인들이 실질적으로 스크린쿼터 감시를 시작한 이유는 그만큼 한국영화의 사정이 절박하였으며, 이전에 스크린 쿼터 외에도 규제로 작용하던 정책들이 모두 사라져서, 스크린 쿼터라는 칸막이가 없다면 한국영화산업은 미국영화산업에 발가벗겨지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위기감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한국영화의 제작편수는 급격히 줄어든다. 이들이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한 지니계수는 원래의 취지대로 한국영화산업내의 성과의 결과물의 분배가 어떻게 이뤄지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로 사용되어야 마땅하지,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는 부적절 하다. 경제적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의 원래의 취지로 살펴보면, 한국영화계는 규모가 일천하고 빈곤하였지만, 서로가 비슷한 수준의 흥행 성적을 나뉘가지던 시기에서, 승자독식의 양상이 심화되어 몇몇 영화가 흥행을 주도하고, 나머지는 제작비도 건지지 못하는 즉 흥행의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시기로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일 것이다. 지니계수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결국 아무리 한국영화의 점유율과 흥행 성적이 좋더라도, 한국영화계 전체

가 체감하는 경기는 냉랭하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1964년에는 연간 6편의 한국영화를, 연간 90일 이상 2개월마다 한편씩 상영하도록 하고 외국영화 수입편수는 당해 연도 한국영화 상영편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스크린 쿼터 제를 시행했다. 1970년의 3차 영화법 개정은 스크린 쿼터 일수가 30일 이상으로 축소되나, 극장 당 연간 3편 이상 한국영화 상영이 의무화되고 구체적으로 4개월마다 한편 이상을 상영하도록 제도화하였으며, 1985년 5차 영화법에서는 국산영화와 외국영화를 교대로 상영하는 교호 상영제를 도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들에는 스크린 쿼터 외에 다양한 외국영화규제책이 공존하고 있었다. 스크린 쿼터는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상영일수를 제한하는 것이지, 한국영화가 쿼터 기간 내에 몇 편이 상영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미국영화수입업자와 직배사, 그리고 미국영화업계의 입장에서는 스크린 쿼터의 철폐가 그들의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법일 것이다. 미국영화는 자국 내 시장에서 영화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을 가지고 있다. 미국영화가 벌어들이는 국외 수입은 고스란히 순수입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블록버스터와 그렇지 않은 영화를 끼워 팔기, 블록부킹을 통해서 다양한 질적인 수준을 지닌 미국영화를 끊임없이 한국 극장에 공급하려 할 것이다.

한국영화만을 배급하는 배급업자의 경우, 스크린 쿼터는 그들이 배급하는 한국영화가 극장에 걸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영화 배급업자처럼 블록버스터 등 방대한 레퍼토리의 영화를 바탕으로 블록부킹 등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극장 업자에게 영원한 울의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영화제작업에 종사하는 영화스태프 들은 결국 한국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될 수 있어야만 직업을 유지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축적해 나갈 수 있다. 스크린 쿼터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직업 안정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은 한국영화산업이 여의치 않다면, 방송이나 CF, 등 기

타 영상 관련 산업으로의 전업을 할 수도 있고, 영상업계를 떠날 수도 있다. 국내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 현재의 한국에서 한국영화산업의 고용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 상업 영화계와 독립영화계가 완전히 단절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상업영화계에 종사하는 조수 등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 생계와 기술습득을 상업영화제작에서 취하고, 독립영화에서 촬영, 조명 감독 등 주요 스태프와 배우로도 활동하는 현실에서 상업영화는 한국 독립영화의 존재에 일부 기여하고 있으며, 독립영화계는 마치 프로야구의 2군처럼, 한국영화산업에서의 예비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양성의 주장이 스크린 쿼터의 무용론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양상은 경계하여야 하며, 다양성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대미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활동주체들은 스크린 쿼터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라고 보기 힘들지만, 대미 수출을 높여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 한국의 영화산업의 희생이라는 비용을 치를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영화가 한국의 자동차산업처럼 미국시장 및 해외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많다면 이들은 한국영화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지 않겠지만, 문화적 상품의 경우는 각국의 언어와 문화적 전통과 가치가 반영된 소프트웨어 산업이라서, 그리고 미국의 할리우드처럼 막강한 산업을 형성하고 있지도 않기에, 상대적으로 수출이 용이하고 확대가 가능한 자동차, 전자제품 등 하드웨어 산업을 위해 한국영화산업의 희생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 이들에게 문화 콘텐츠 산업이란 자신들이 만드는 하드웨어 상품의 이미지 가치를 높여주는 “한류” 라던가, 영화 “아바타”처럼 현대자동차 수출 몇 만대로 환산할 수 있는 해외시장에서의 경제적 수입을 올리는 경우에만 주목의 대상이 된다. 한국영화가 과보호 속에서 성장했다는 이들의 비판 역시, 완벽한 한국 내 독점 시장 속에서 성장한 현대, 기아차 자동차 산업이 이를 바탕으로 해외수출을 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비판의 설득력을 잃는다. 문제는 이

러한 이해관계집단이 스크린 쿼터 폐지 논리를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가지고 실증적, 정량적으로 펼쳐왔고, 문화적 주체성과 다양성을 내세우는 스크린 쿼터 유지 논리를 감정적 문화적 국수주의, 민족주의처럼 보이게 만들어 왔다는 점이다. 수출은 기록적으로 늘어나나, 그에 따른 분배의 효과 즉 한국 내 고용성장이 없는 현재의 한국경제상황에서 사회복지 산업처럼 영화산업 등, 서비스, 콘텐츠 산업의 국내 고용 증대 효과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 III. 스크린 쿼터 축소 전후 3년간 한국영화시장

이번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는 영진위의 각년도 영화연감과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수집하였다.

그 범위는 스크린쿼터 축소가 시행된 2006년을 중심으로 이전 3년 즉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그리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영화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전국관객수의 정보가 없는 영화는 제외하였으며, 영화제 상영용 영화도 제외하였다. 2006년도에 개봉된 영화를 제외한 이유는 그해의 중간에 스크린 쿼터 축소가 이뤄졌고, 그에 따른 배급업자 등의 대응방법이 이전에 만들어졌으나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영화들을 연말 재고 처리하듯이 극장에 쏟아내는 등 스크린 쿼터의 축소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극장에 영화를 개봉하기 위해서는 마케팅비용이 10억 미만의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의 경우 평균 7억 5천만 원이, 10억 이상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의 경우 15억 8천만 원이 들어간다. 마케팅비용을 들인 만큼의 수입을 확신하기 어려운 한국영화들의 경우 한동안 배급사 창고에 쌓여있었는데 이러한 영화들이 대다수 2006년 하반기에 개봉되었다.

각 년도 별 국내에 개봉된 영화편수는 2003년에 240편, 2004년에 268편, 2005년 298편, 2006년 345편, 2007년 392편, 2008년 380편, 2009년 361편이다.

수집한 변수들은 우리나라 개봉연도, 국내 상영 등급, 개봉일시, 제작국적, 국내배급사, 서울개봉 스크린 수, 서울 관객 수, 전국 관객 수, 각 년도 전국 스크린 수, 스크린 쿼터 축소 이전 이후이다.

영화제작비의 경우, 미국영화는 비교적 공개되어 있으나 한국영화의 제작비는 공개된 자료가 없다. 심지어 영화진흥위원회조차도 추론만 할 뿐이다. 그래서 이번 연구의 변수에서 제외 되었으며, 영화 장르의 경우는 장르를 구분 짓는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고, 장르 혼합의 경우가 많으며, 기존의 연구에서도 영화 장르와 흥행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가 일정하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양적인 연구보다 질적인 연구에 적합한 측면이 있어서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종속변수는 개봉영화의 전국관객수이다.

한국영화시장은 크게 한국영화와 미국영화가 양분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에서 개봉된 영화들 중에서 이번 분석의 대상이 된 영화편수는 개봉편수 806편 중 총 792편이고 이중 한국영화는 222편, 미국영화는 329편이다. 2007년부터 2009년(2010년 이월작 포함)까지 상영된 영화 중 분석대상 영화편수는 개봉편수 1133편 중 1,135편(이월작 포함)이고 이중에서 한국영화는 342편이고 미국영화는 390편이다. 분석대상영화 1,927편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10]과 같다. [표 11]은 이 연구와 관련 있는 한국영화정책상의 중요변화를 정리하였다. 표 12는 연도별 한국영화의 주요지표를 영진위 2009년 한국영화산업 결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영화 전국 관객 수는 2006년 9,791만 명을 최고로 감소 추세이며, 점유율 또한 2006년 63.8%에서 2009년 48.8%로 감소하였으며, 개봉영화편수는 2006년 108편에서 2009년 118편을 유지하고 있다. 제작편수도 2006년 110편인 이래 100편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순제작비와 마케팅 비용을 합한 총 제작비가 10억이 되지 않는 개봉영화는 점차 늘어나서 2009년에는 개봉된 한국영화 118편 중 64편이 10억 미만의 영화로서 한국영화 중 54.2%가 이에 해당된다. 평균 순제작비와 평균 마케팅 비용 또한 2006년 이후로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면적인 내용을 보면, 스크린 쿼터 축소이후, 한국영화계는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연간개봉 편수는 유지하면서 디지털 영화제작으로 제작비 감소를 취하고, 마케팅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면서, 10억 미만의 영화를 통해서 스크린쿼터 축소에 적응하고 있다.

1. 스크린 쿼터 축소 전후 3년간 한국개봉 영화집단간의 전국 관객 수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

2006년은 스크린 쿼터축소가 시행된 시기라서 확연히 이전 스크린쿼터를 따르는지 이후 스크린쿼터를 따르는지 판단을 유보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스크린 쿼터가 축소된 2006년을 기준으로 스크린 쿼터 축소가전 집단 즉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집단과 스크린 쿼터 축소이후 집단 즉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집단간의 평균 전국 관객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영화의 관객 수에 대한 모집단의 정상분포를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비모수적 통계방법을 적용하여 맨 휘트니 검정(Mann-Whitney Test)<sup>3)</sup>을 실시하였다.

축소가전 개봉 집단의 792편의 영화의 순위를 평균한 값이 1053.31이고 축소이후 집단의 1135편의 영화의 평균 순위는 901.68이다. 검정 통계량 표에서 Mann-Whitney의 U 통계량은 378723.5이고 유의확률은 0.05보다 작은 0.00이므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그 결과 스크린쿼터 축소가전 3년 개봉 영화 집단과 스크린쿼터 축소이후 3년 개봉영화집단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었다. 축소가전 개봉영화집단의 전국 관객 수 평균 520,060.8182명과 축소이후 개봉영화집단의 전국 관객수 평균 413,815.6987명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며, 축소가전보다 축소이후 개봉영화 평균 관객 수는 줄어들었다.

표 1. 스크린 쿼터 축소 전후 3개년 개봉영화집단간의 전국 관객수 Mann-Whitney 검정 수행 결과-순위

순위			
스크린쿼터축소	N	Mean Rank	Sum of Ranks
축소가전(2003-2005)	792	1053.31	834224.5
축소가후(2007-2009)	1135	901.68	1023404
Total	1927		

3 영화홍행의 모집단 분포가 정상분포라고 가정하기 힘들며 파레토 분포 혹은 여타의 분포를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료가 독립이고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표본수가 적은 경우에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는 비모수 통계기법인 맨 휘트니 유 테스트를 본 연구에서 시행하였다. 아울러서 정상분포임을 가정할 때 시행할 수 있는 T 검정을 별도로 시행하여 참고하였다. 각각의 연구문제에 대한 T 검정 역시 맨-휘트니 유 테스트의 결과에서처럼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표 2. 스크린 쿼터 축소 전후 3개년 개봉 영화 집단 간 Mann-Whitney 검정 수행 결과-검정 통계량

검정통계량(a)	전국 관객 수
Mann-Whitney U	378723.5
Wilcoxon W	1023404
Z	-5.886
Asymp. Sig. (2-tailed)	0.00

a 집단변수: 스크린쿼터축소

2. 스크린쿼터 축소전후 한국영화집단간의 Mann-Whitney 검정

스크린쿼터 축소가전 3년 개봉 영화 집단과 스크린쿼터 축소이후 3년 개봉영화집단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후, 그렇다면, 한국영화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스크린쿼터 축소 이전집단과 이후집단의 전국 관객 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축소가전 3년 개봉 한국영화집단의 222편의 영화의 순위를 평균한 값이 341.93이고 축소이후 3년 개봉 한국영화집단의 342편의 영화의 평균 순위는 243.93이다. 검정 통계량 표에서 Mann-Whitney의 U 통계량은 24769.5이고 유의확률은 0.05보다 작은 0.00이므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그 결과 차이가 있었다.

스크린 쿼터 축소가전 한국영화평균 관객 수는 1,107,217.82명이었는데 축소이후 한국영화 평균 관객 수는 640,109.9123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

표 3. 스크린 쿼터 축소 전후 3개년 개봉 한국영화집단 간의 Mann-Whitney 검정 수행 결과-순위

순위			
스크린쿼터축소	N	Mean Rank	Sum of Ranks
축소가전(2003-2005)	222	341.93	75907.5
축소가후(2007-2009)	342	243.93	83422.5
Total	564		

표 4. 스크린 쿼터 축소 전후 3개년 개봉한국영화집단간의 Mann-Whitney 검정 수행 결과-검정 통계량

검정통계량(a)	
	전국 관객 수
Mann-Whitney U	24769.5
Wilcoxon W	83422.5
Z	-6.978
Asymp. Sig. (2-tailed)	0.00

a 집단변수: 스크린쿼터축소

3. 스크린 쿼터 축소 전후 3개년 개봉 한국영화집단간의 평균에 대한 T 검정

비모수적 통계방법 외에 모집단이 정상분포를 이룰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t 검정 실시, t값이 -3.390이고 유의 확률이 0.001으로 0.05보다 작으므로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해석, 스크린 쿼터 축소 후 평균 한국영화관객수가 작은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4. log 전국 관객 수에 대한 T 검정

위의 T 검정은 모집단이 정상분포를 이룰 것이라는 가정을 무시한 결과인데, 관객 수 동원의 양극화를 정상분포와 가까운 형태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전국 관객 수에 대한 log값을 취하고 이에 대한 T 검정도 실시하여 보았다.

스크린 쿼터 축소 후 한국영화의 전국 관객 수 log의 평균은 4.56이고 축소는 5.42이다

이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는 등분산을 가정하여 t값은 -7.729로 유의 확률이 0.000으로 0.05보다 작으므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스크린 쿼터 축소 후 한국영화 관객 수 평균이 낮은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이로써, 관객 수의 정상분포를 가정한 상태와 가정할 수 없는 상태를 가정하여 실시한 검증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후 평균 한국영화관객수가 축소는 전보다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스크린쿼터 축소전후 개봉미국영화 전국 관객 수 평균의 차이는 의미가 있는가?

미국영화를 대상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이전과 이후의 전국 관객 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축소이전 3년 개봉 미국영화집단의 329편의 영화의 순위를 평균한 값이 359.74이고 축소이후 3년 개봉 미국영화집단의 390편의 영화의 평균 순위는 360.22이다. 검정 통계량 표에서 Mann-Whitney의 U 통계량은 64068이고 유의확률은 0.05보다 큰 0.975이므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스크린 쿼터 축소 후 미국영화의 평균 관객 수는 559907.29이고 축소이전은 432,204.6322명으로 축소이후 평균관객수가 증가하였으나. 스크린쿼터 축소 후 미국영화관객 수 평균이 높은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표 5. 스크린 쿼터 축소 전후 3개년 개봉 미국영화집단 간의 Mann-Whitney 검정 수행 결과-순위

순위			
스크린쿼터축소	N	Mean Rank	Sum of Ranks
축소이전(2003-2005)	329	359.74	118353
축소이후(2007-2009)	390	360.22	140487
Total	719		

표 6. 스크린 쿼터 축소 전후 3개년 개봉미국영화집단간의 Mann-Whitney 검정 수행 결과-검정 통계량

검정통계량(a)	
	전국 관객 수
Mann-Whitney U	64068
Wilcoxon W	118353
Z	-0.031
Asymp. Sig. (2-tailed)	0.975

a 집단변수: 스크린쿼터축소

6. 스크린쿼터 축소전후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국가의 영화들의 전국 관객 수 평균의 차이는 의미가 있는가?

미국 한국을 제외한 국가의 영화들의 전국 관객 수 평균은 스크린 쿼터 축소 이후 80395.50명이고 축소는



전은 99130.66명이다.

Mann-Whitney 검정 결과,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이전 3년 개봉 미국 한국 이외 국가 영화집단의 241편의 영화의 순위를 평균한 값이 334.03이고 축소이후 3년 개봉 미국 한국 이외 국가 영화집단의 403편의 영화의 평균 순위는 315.60이다. 검정 통계량 표에서 Mann-Whitney의 U 통계량은 45782이고 유의확률은 0.05보다 큰 0.224이므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스크린 쿼터 축소가 연구대상 기간 중에 한국에서 개봉된 미국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들의 관객 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표 7. 스크린 쿼터 축소 전후 3개년 개봉 미국, 한국영화 제외 국가 영화집단 간의 Mann-Whitney 검정 수행 결과-순위

순위			
스크린쿼터축소	N	Mean Rank	Sum of Ranks
축소이전(2003-2005)	241	334.03	80502.00
축소이후(2007-2009)	403	315.60	127188.00
Total	644		

표 8. 스크린 쿼터 축소 전후 3개년 개봉 미국, 한국제외 국가 영화집단간의 Mann-Whitney 검정 수행 결과-검정 통계량

검정통계량(a)	
	전국 관객 수
Mann-Whitney U	45782.000
Wilcoxon W	127188.000
Z	-1.217
Asymp. Sig. (2-tailed)	0.224
a. 집단변수: 스크린쿼터축소	

결과를 종합해 보면, 스크린 쿼터 축소 전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한국영화관객 총수는 2억4천5백8십만 2천356명이고, 축소이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한국영화 관객 총수는 2억1천8백91만7천590명이다. 축소이전보다 한국영화관객 총수는 2천6백88만4766명이 줄었다. 축소이전 한국영화 관객 수 평균은 1백1십만 7천

217.82명이며, 축소이후는 6십4만109.9123명이다. 축소이전보다 한국영화 관객 수 평균은 46만7107.9077명이 줄었다. 관객 수 중앙값은 축소이전에 544,594명에서 축소이후 77,265명으로 감소하였다. 축소이전의 한국영화 편수 222편보다 축소이후에 한국영화 편수가 342편으로 늘어났으나, 이것이 전체 한국영화 관객 수 증가라는 파이를 키우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독립영화와 10억 미만의 저예산영화 편수의 증가는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평균 관객수 증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다. 축소이전과 축소이후의 개봉영화전체에 대한 평균 관객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나, 미국영화와 기타 외국영화의 관객 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었다. 한국영화 평균관객수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즉 스크린 쿼터 축소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서 축소이전과 축소이후의 한국영화를 비교해 보았을 때 축소이후 줄어든 한국 영화 관객 수 평균의 원인은 스크린 쿼터 축소의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7. 지니계수 (Gini Index)

소득의 분배 상태를 알아보는데 사용되는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영화홍행의 불평등도를 측정하여 천만관객을 동원하는 등 소수의 블록버스터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들 사이의 관객 수의 불균형도를 보고, 소수의 영화의 흥행이 전체 영화시장의 평균관객수를 올리는 현상이 스크린 쿼터 축소 전후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각년도의 전국관객수의 지니계수를 구하기 위해 SPSS의 신택스를 활용하였다[5].

지니계수는 0과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계수가 0이면 소득분포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이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해지고 1일 경우에는 완전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0.4를 넘으면 소득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하다고 여겨진다. 해당년도의 영화의 흥행 분포의 불평등도를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2003년부터 살펴본 지니계수를 보면 전반적으로 영화홍행의 불평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0.79이고, 미국영화의 경우는

0.71에서 0.76 사이의 변화를 보이며 평균으로는 0.74의 값을 보인다. 그런데 한국영화의 흥행분포는 0.58에서 0.84까지 큰 변화를 보였고,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던 해를 기점으로 0.70을 넘어서 2009년 현재 0.84의 불평등도를 보인다. 그 결과 미국영화와 유사한 불평등도를 가지게 되었고, 영화 흥행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표 9. 개봉영화의 전국 관객 수에 대한 연도별 지니계수

연도	전체 개봉영화	한국영화	미국영화
1980-1984		0.551	
1985-1992		0.693	
1993-1998		0.767	
1999-2003		0.726[6]	
2003	0.75	0.66	0.71
2004	0.75	0.58	0.71
2005	0.79	0.67	0.73
2006	0.80	0.70	0.76
2007	0.81	0.71	0.76
2008	0.79	0.74	0.73
2009	0.84	0.84	0.76
평균	0.79	0.70	0.74

#### IV. 스크린 쿼터 축소 전후 3년간 한국영화시장에서 영화의 서울 스크린 수, 전국관객수와 영화의 국적, 배급사의 관계

대상이 되는 기간 중, 한국영화 시장에서 개봉되는 영화의 서울 스크린 수와 전국관객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배급사의 마켓 파워는 얼마나 많은 극장에 자신의 영화를 내걸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파워가 강한 배급사의 영화가 그렇지 못한 배급사의 영화보다 많은 극장에 배급할 수 있어서 관객이 보다 쉽게 영화에 접근할 수 있다[7].

2006년을 제외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의 흥행 성적에 영화의 국적과 배급사의 역할, 스크린쿼터 축소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서울스크린수와 전국관객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log 서울 스크린 수, log 전국관객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을 추려내었다. 상관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들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관찰되었다.

#### 1. log 전국 관객 수에 대한 회귀분석

스크린 쿼터의 축소는 log 전국 관객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계수는 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의 경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각 배급사의 경우, 배급사가 흥행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분석을 해석하기 위해, 특정 영화 A를 가정하자. 이 영화가 미국과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 만들어 졌고, 인디스토리에서 배급하며, 스크린 쿼터 축소이후인 2007년부터 배급된 영화라고 하면, 이 영화의 log 전국 관객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많은 관객을 잃는다고 볼 수 있다.

$$\text{log 전국 관객 수} = 4.109(\text{상수}) - 0.408(\text{미국 한국 이외 국가영화}) - 0.764(\text{인디스토리 배급}) - 0.175(\text{스크린쿼터 축소}) = 2.762 \quad (1)$$

다음으로 특정영화 B가 미국이나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이며, SK 텔레콤이 배급하고, 스크린 쿼터 축소가 후에 상영된 영화라면, 이 영화의 log 전국 관객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는 전국 관객수를 보다 더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

$$\text{log 전국 관객 수} = 4.109(\text{상수}) + 1.798(\text{SK 텔레콤 배급}) - 0.175(\text{스크린쿼터 축소}) = 5.732 \quad (2)$$

#### 2. log 서울 스크린 수에 대한 회귀분석

스크린 쿼터의 축소는 log 서울 스크린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특정 영화 C를 가정하자. 이 영화가 미국이나 한국이외의 국가에서 만들어졌으며, 인디스토리가 배급한다면, 서울에서 확보

할 수 있는 극장의 수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log$  서울 스크린 수 =  $0.837 - 0.257(\text{미국, 한국이외 국가영화}) - 0.424(\text{인디스토리배급}) = 0.156$  (3)

또 다른 영화 D가 미국이나 한국영화이며, CJ에서 배급한다면, 보다 많은 스크린 수를 확보가능하다.

$\log$  서울 스크린 수 =  $0.837 + 0.634(\text{CJ 배급}) = 1.471$  (4)

## V. 연구결과의 종합

[표 12]에서 보면, 한국영화의 관객 수는 스크린 쿼터가 축소된 이후인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이러한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인지, 스크린 쿼터의 영향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스크린 쿼터 축소 전후 3개년 간을 스크린 쿼터 축소 전 집단과 스크린 쿼터 축소 후 집단으로 나눠서 실시한 분석에서 스크린 쿼터의 축소가 한국영화관객수의 감소를 가져왔고, 미국영화의 경우는 관객 수의 증가를 가져왔으나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는 아니었다. 즉 스크린 쿼터축소가 미국 영화의 관객증가를 가져왔다고 보기 힘들다. 미국과 한국 영화이외의 국가들의 영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니 분석을 통해서도 스크린 쿼터 축소이후, 한국영화의 흥행성과의 불균형도도 상당히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주로 다양성 영화를 배급한 인디스토리 배급이거나, 미국과 한국 이외 국가에서 만들어진 영화. 그리고 스크린 쿼터축소가 영화의 전국관객수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최근에 배급시장에 뛰어난 SK 텔레콤의 배급을 한다면 관객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스크린 수를 결정하는 요인에서는 스크린 쿼터 축소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CJ배급 라인을 따르는 영화의 경우 서울 지역 스크린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크린 쿼터 축소는 한국영화에만 영향을 미쳐서 관객 수의 축소를 가져왔다.

## VI. 맺는 말

2009년 한 해 동안 한국의 극장가에는 1억5490만 명의 관객이 몰려들었다. 표면적으로 스크린 쿼터 축소가 이후에도 극장가의 관객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객의 증가가 곧 한국영화산업, 더 자세히는 한국영화제작업의 현주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스크린 쿼터 축소이후에도 한국영화가 잘 되고 있다는 착시효과만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된다. 스크린 쿼터 축소 전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한국영화관객 총수는 2억4천5백8십만2천356명이고, 축소이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한국영화 관객 총수는 2억1천8백91만7천590명으로, 축소이전보다 한국영화관객 총수는 2천6백88만4766명이 줄었다. 축소이전 한국영화 관객 수 평균은 1백1십만 7천 217.82명이며, 축소이후는 6십4만109.9123명이다. 이는 한국영화 관객 수 평균이 축소이전보다 46만7107.9077명이 줄었다. 관객 수 증양값은 축소이전에 544,594명에서 축소이후 77,265명으로 감소하였다. 축소이전의 한국영화편수 222편보다 축소이후에 한국영화 편수가 342편으로 늘어났으나, 흥행성과는 감소한 것이다. 축소이전보다 축소 이후의 개봉영화전체에 대한 평균 관객 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나, 축소이후의 미국영화의 평균 관객 수 증가와 기타 외국영화의 평균 관객수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었다. 반면 한국영화 평균관객수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즉 스크린 쿼터 축소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눠서 축소이전과 축소이후의 한국영화를 비교해 보았을 때 축소이후 줄어든 한국 영화 관객 수 평균의 원인은 스크린 쿼터 축소의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log$  전국 관객수 결정요인에서 스크린 쿼터 축소이후의 개봉영화는  $-0.175$ 의 가중치를 부여받아서  $\log$  전국관객수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영화 흥행의 양극화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 저서 2009년의 지니계수는 0.84로 심각한 불균형에 처해 있다. 10억 미만의 저예산 영화가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업영화에서의 고른 흥행성적을 낳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디지털 시네마의 확대와 합리적 경영으로 비용 상승 요인을 줄여나가고, 정밀한 시장조사에 기반을 둔 창조적인 작품을 시장에 내놓아서 고르게 관객을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스크린 쿼터 축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한국영화제작업의 경기변동에 대한 감시와 그에 따른 대응 정책을 고안해 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한국영화제작업의 고용효과와 고용의 질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표 10. 스크린쿼터 축소전후 3년간 전국 관객 수 기술통계

스크린쿼터 축소전후 3년간 영화별 전국 관객 수 기술통계			
기간구분	2003-2005년		
	전체개봉영화	한국영화	미국영화
평균	520,060.8182	1,107,217.82	432,204.6322
표준 오차	40,015.44285	116,102.4876	42,966.39345
중앙값	90,273.5	544,594	120,995
최빈값	170	#N/A	100,000
표준 편차	1126134.383	1729888.104	779,339.7896
분산	1.26818E+12	2.99251E+12	6.07371E+11
첨도	41.07704154	18.96903705	13.00939104
왜도	5.27364707	3.785322722	3.241159811
범위	12,302,829	12,302,580	5,959,998
최솟값	2	251	2
최댓값	12,302,831	12,302,831	5,960,000
합	411,888,168	245,802,356	142,195,324
관측수	792	222	329
2007-2009년			
기간구분	2007-2009년		
	전체개봉영화	한국영화	미국영화
평균	413,815.6987	640,109.9123	559,907.2872
표준 오차	31,919.94504	74,190.50039	61,482.46427
중앙값	34,474	77,265	137,876
최빈값	2	469,984	15
표준 편차	1,075,375.321	1,372,022.878	1,214,181.383
분산	1.15643E+12	1.88245E+12	1.47424E+12
첨도	42.31177367	21.46676714	37.36190746
왜도	5.565914522	4.149658117	5.065249669
범위	1,326,3172	11,325,224	13,263,171
최솟값	2	4	3
최댓값	13,263,174	11,325,228	13,263,174
합	469,680,818	218,917,590	218,363,842
관측수	1,135	342	390

표 11. 스크린 쿼터 축소 이전까지 중요 영화정책의 변화

연도	주요영화정책 및 영화계 현황[8]
1980	문공부 영화시책 <b>외국영화수입쿼터 22편</b> , 연간한국영화제작 90편 내외, 방화 제작 편수 연간 3편 이상 5편까지 한도, 대중상 최우수 작품과 우수작품상에 외화수입쿼터 각 1편씩 주기로. 칼라 tv보급시작, <b>외화 프리트 수 6편, 스크린 쿼터 122일</b>
1981	연간 100편 내외 제작 영화시책 발표, 외화수입 쿼터 22편, 20개 영화사에 각 2편, 대중상 우수영화에 2편. 홍콩 무협합작 영화 금지, 스크린 쿼터 165일.
1982	상하반기 각각 2편씩 한국영화제작, 우수영화 2편을 만든 제작사에 해외쿼터 1편 배정
1985	7월 3일자로 제작업자와 수입업자 분리, 영화사 허가제에서 등록제(이전까지 20개 영화업자독점), 영화업 허가기준 시설 조항 삭제, 영화업 위탁금지 실시. 영화독립 제작은 신고 후에 1년에 1편 제작 가능.
1986	외국영화 수입 자유화. 외국영화수입사 54개사, 외국영화수입업 등록비 5천만 원
1987	시나리오 사전 심의 폐지 및 심의 완화, 7월1일자로 <b>수입 자유화와 영화시장 개방. 1년 상영일수에 2/5 이상을 국산영화를 교환(交互)상영해야만 한다는 스크린쿼터제도.</b>
1988	UIP <위험한 정사> 직배 시작. 외국영화 수입 1백75편.
1989	국영화 1백10편 제작. 독립프로덕션 19편 제작. 2백64편의 영화수입. 외화수입심의 간소화 및 통관추천제를 폐지. 영화진흥책의 일환으로 종합촬영소 건립추진.
1992	한국영화 제작편수 96편. 영화인협회의 스크린쿼터 감시활동. 외국영화는 420편(세계 총영화편수의 약 10분의 1을 수입) 수입영화 가운데 미국과 홍콩영화가 80%를 차지.
1993	영화업을 준제조업으로 분류(6월2일). 서울종합촬영소 개관(11월12일)
1994	대기업 자본 충투로 영화계 유입시작 한국영화제작 편수는 65편. 외국영화 4백23편 <b>프린트벌수 제한(현행 외국영화당 12벌)폐지.</b>
1997	IMF. 한국영화 59편 제작. 한국영화의 평균제작비(대략 6~7억 원 정도)
1998	대기업들 영화산업에서 철수 시작. 한국영화 43편 제작. 수입 영화 316편 중 미국 영화가 216편. "CGV 강변 11" 등 멀티플렉스 극장의 등장. 98년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관객 기준 25.1%, 입장료 수입 기준 24.3%를 기록
2000	통합 방송법의 '한국영화의무편성비율' (방송쿼터) 규정이 시행(5월)
2003	마이내리티쿼터 제도 논의 시작
2004	<실미도>, <태극기를 휘날리며> 개봉. CJ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계열 프리머스 시네마를 인수.
2005	이동통신사의 영화산업 진입 '영화인조합' 과 '한국영화산업노동조합' 이 결성.
2006	<왕의 남자>, <괴물>의 개봉. 2006년 초저예산 독립영화의 흥행, 일본영화 완전개방. 한국영화 배급사 전국 관객 점유율에서 CJ엔터테인먼트, 쇼박스, 시네마서비스 3사의 합은 83.0%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기준 75%를 초과. <b>스크린쿼터를 상영일수의 2/5(106일)에서 1/5(73일)로 축소. 2006년 7월 1일부터 축소된 스크린쿼터 일수 적용.</b>

표 12. 연도별 한국영화 주요 지표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국관객수 (만 명)	6,391	8,019	8,544	9,791	7,939	6,354	7,647
점유율(%)	53.5	59.3	58.7	63.8	50.5	42.1	48.8
개봉편수	65	74	83	108	112	108	118
제작편수	80	82	87	110	124	113	118
총 제작비 10억 미만 개봉 편 수	x	x	16	25	35	38	64
스크린 수	1,132	1,451	1,648	1,880	1,975	2,004	1,996
평균 순 제작비(억 원)	28.4	28.0	27.3	25.8	25.5	20.7	15.6
평균 마케팅비	13.2	13.6	12.6	14.4	11.7	9.4	7.5

참 고 문 헌

[1] 조선일보, “아바타 ‘대박’이 극장가 흥년 원인?”, 2010년9월2일 목요일 52판 A25면, 2010(9).

[2] 박민수, 오정일, “스크린 쿼터의 규제효과에 관한 미시적 연구: 극장주의 상영패턴을 중심으로”, 규제연구, 제17권, 제1호, 2008(6).

[3] 오정일, 조현승, “스크린 쿼터제의 문화 정책적 유효성 검증”, 한국정책학회보, 제14권, 제1호, 2005.

[4] 양경미, 한국영화산업의 보호정책과 이익집단의 역할에 관한 연구- 스크린 쿼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0(2).

[5] <http://listserv.uga.edu/cgi-bin/wa?A2=ind0811&L=spssx-l&F=&S=&P=11508>

[6] 오정일, 조현승, 앞의 글, pp.65-66.

[7] B. H. Chang and E. J. Ki, “Devising a Practical Model for Predicting Theatrical Movie Success: Focusing on the Experience Good Property,” Journal of Media Economics, Vol.18, No.4, pp.247-269, 2005.

[8] 영화진흥위원회, 2009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2010  
 \_\_\_\_\_ 한국영화연감, 2002-2009.  
 \_\_\_\_\_ 1999-2008년 한국 영화관객 성향변화 분석, 2009.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저 자 소 개

김 정 호(Jung-Ho Kim)

정회원



- 1992년 2월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학사)
  - 2001년 6월 :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program in film & video MFA.(예술실기석사)
  - 2003년 3월 : 동서대학교 디지털영상매스컴학부 전임강사
  - 2004년 9월 ~ 현재 :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영화 영상제작, 영화사, 영화편집, 영화경제